

§ 교회 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행 동지 십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2. 다시 교회로(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교회 설립 31주년 감사 메시지

새로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손달익 담임목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 지상에 허락하신 기구가 교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1991년 서울교회가 출범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참으로 필요로 하시는 교회를 지향하며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라는 교회의 본질적 소명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출발했습니다. 30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은혜와 감격의 시기를 보냈으나 예기치 못했던 환난을 만나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긍휼로 어려움을 수습하고 새로운 역사를 위한 심기일전의 자세로 우리는 오늘 창립 3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돌보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과업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기본을 더욱 충실하게 해야겠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기본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기본은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고 인체의 골격과도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믿는 내용과 살아갈 내용을 결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믿으며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의 사역으로 받아들이고 실천을 위해 우리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 요소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주님의 가슴속에 꿈꾸셨던 그 교회를 우리의 이상향으로 삼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근본을 회복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뜻을 받들고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교회의 모든 사역과 행정의 정상화입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우리는 교회 회복과 성도 돌봄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긴급한 특수상황이 해소되었기에 앞으로 모든 일의 정상화를 추구하고 보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등의 기본 사역에 충실하고 민주적 절차와 투명한 행정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참여라는 기본 원칙들이 중시되는 장로교회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전쟁 시의 국가운영 방식과 평화 시의 국가운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듯 이제 우리에게도 보편 교회의 모습이 구현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위해 함께 마음을 다한 헌신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셋째는 사역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지혜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요청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긴급한 일들이 많이 놓여있습니다. 모두 중요하고 경중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교회학교의 회복과 다음 세대의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많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너무 큰 시련과 손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깊은 회개와 성찰이 필요하고 회복을 위한 비장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옛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 고향 마을의 문전옥답을 팔아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 교회의 가장 우선해야 할 사역 1순위라고 믿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착한 사역에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몇 년을 보내야 합니다. 유희를 즐길 여유가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모두가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교회 설립 31주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 정관개정을 위한 투표와 공동의회 -

오늘은 교회 설립 31주년 기념주일이다. 31년 전 우리에게 예배 드릴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2022년 오늘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자. 특별히 오늘 1, 2, 3부 예배 후 교회 정관개

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되며 찬양예배 후에는 결과를 발표한다.

지나온 30년의 토대 위에 앞으로의 30년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교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관개정을 위한 공동의회

당회는 지난 11월 정기당회에서 현재까지 별도 규정형태로 시행 중이던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을 교회정관에 포함시키고 교단헌법 개정에 따라 일부 부서 명칭과 항존직 호칭을 변경하는 등의 정관개정안을 처리하였다.

당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오늘 1, 2, 3부 예배 후마다 있을 공동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이번 공동의회 회원자격은 등록 후 1년 이상 되고, 투표일인 오늘 기준 만 18세 이상의 세례(입교 포함)교인이다.

사실 교회정관개정은 통상적인 공동의회에서도 가능하지만 이번만은 불필요한 법적 시비에 또다시 휘말리지 않기 위해 민법상 요구되는 전체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하는 절차이다.

위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공동의회 회원들은 오늘 예배에 들어올 때 본당 로비에 설치된 각 교구별 테이블에서 회원자격 확인과 함

께 투표지를 수령하게 되고, 예배 후 실시되는 공동의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행한 후 나가실 때 입구에 비치된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물론 지난번 안내한 바와 같이 사정상 오늘 공동의회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인들 명의의 위임장 또는 카톡이나 휴대폰으로 받은 위임 문자를 제시하여 위임인 몫의 투표지를 받아 대신 투표할 수 있다.

오늘 공동의회는 오후 4시 최종 투표를 마감하고 찬양예배 종료 후 결과를 발표한 후 폐회하게 된다.

이번 공동의회에 서울교회 교인 명단에 있는 재적교인 전체가 한 분도 빠짐없이 직접 또는 위임으로 참여하여 다시는 법적분쟁의 위험에 빠지지 않는 든든한 교회를 세우기 계기가 되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치동 청소년을 위한 비전 나눔 음악회

오늘 오전 9시 40분
웨스트민스터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며 사단법인 더불어 배움재단이 주최하는 '대치동 청소년을 위한 비전 나눔 음악회'가 11월 27일(주일) 오전 9시 30분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열린다.

평소 교회에 들어올 계기가 없었던 대치동 주변의 청소년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교회에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전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음악회다. 청소년들의 문화코드에 맞는 노래들로 준비된 이번 음악회에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로얄캐닌코리아, 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호산나대학 호산나애견직업훈련센터에 사료 600kg 지원

지난 11월 24일 (목) 로얄캐닌코리아가 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함께 호산나대학 애견직업훈련센터 훈련견을 위한 사료를 지원했다.



호산나대학은 최근에는 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애견 관련 전문인 양성과 훈련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로얄캐닌은 호산나대학 호산나애견직업훈련센터에서 생활 중인 훈련견들의 건강한 영양 관리를 도울 맞춤형영양사료 600kg을 전달했다.

이날 함께 센터를 방문한 로얄캐닌 광영화수의사는 훈련견들의 생애 주기별 영양 섭취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치아와 근육, 체중 상

태 등을 확인하고 영양 상담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견종과 나이의 훈련견들이 단체 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각 훈련견마다 주의해야 하는 질환과 예방

방법, 체중관리 및 사료량 계산 방법 등을 공유하고, 훈련사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영양 관리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로얄캐닌코리아 이수지 대외협력팀장은 "발달장애 학생들이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고 있는 훈련견을 위한 사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도우미견, 훈련견들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마누엘 우리 주 오소서!

대림절 (待臨節) Advent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의 절기와 행사를 정하여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제정된 것이 교회력(教會曆)입니다.

이 교회력은 대림절(待臨節 Advent)로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에 해당되며 매년 11월 30일과 가장 가까운 주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금년은 11월 27일,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대망하던 구약성경의 예언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약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강단 색깔은 절제와 경건과 준비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대림절은 강림절(降臨節) 또는 대강절(待降節)이라고도 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대림절 묵상집을 제작하여 지난 주일에 성도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 대림절 기간 성경을 읽고 묵상집을 읽으며 아기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실 주님을 조용히 기다리며 묵상하는 기간이 되도록 합시다.

서울교회 대림절 묵상집을 발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는 함께 예배 드리는 예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서로 격려하는 친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교회 공동체가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선포된 말씀을 들으며, 읽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도전받은 것을 함께 나누며,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2022년 대림절을 맞이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기를 기대하며 서울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대림절 묵상집을 발간합니다. 이 묵상집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기대와 기쁨으로 채워가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담임목사 손 달 익

2022 사명자대회



백도환 집사
(동원분과장)

서울교회는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7주 전(50일)부터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특별새벽기도를 드리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31년을 맞는 서울교회 사명자대회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운동으로서 50일 동안 24시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연속 기도회를 통하여 전도 대상자인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대회입니다.

주님께서 서울교회로 불러주시고 보내주시므로 사명자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번 사명자대회를 통하여 어린아이로부터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까지 모든 성도들이 사명자로서의 본분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로 주님께 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번 사명자대회에도 행동 강령에 따라 성경통독, 자유키도 및 토요일 전도대회가 진행되었고, 공동기도문과 요일별 기도제목에 따

라 50일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었고, 특별순서로 찬양집회가 11월 18일(금) 저녁 8시에 진행되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CCM 찬양으로 참석한 성도들의 단한 마음을 조금씩 여는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또한 11월 21일(월)부터 11월 26일(토)까지 진행된 특별새벽기도회는 모처럼 초청강사 두분이 오셔서 서울교회에 꼭 필요한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 섬김과 칭찬의 리더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은혜임을 깨달을 때 성도는 행복하여지고 그 은혜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가 베풀 때 더 감동을 줍니다. 칭찬받으려면 어렵지만, 칭찬하려고 하면 행복하고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더욱이 각자의 문제가 다 있지만, 타인의 문제에 대해 기도하면 나의 문제는 사라집니다. 내 자식 기도는 한계가 있지만 모든 자녀를 위한 기도는 무궁무진합니다. 왜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었는지, 왜 공부를 잘하게 해 주었는지 이웃을 생각하면 기도와 꿈이 많아집니다.

2. 하나님의 시간

몇십 년의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통하여 보여지는 극장 인간에서부터 하나님의 인격을 받은 실제 인간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낭비된 것 같지만, 주님의 시간은 예정된 시간으로 헛되거나 틀리지 않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따라 환자에 따라 배려해 주시면서 치유해 주십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배운 신앙생활을 사회에서 직장 생활에 적용했고, 직장 생활에서 익힌 경험을 교회 생활에 활용하여 수십 년간 살아왔지만, 시간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서 예정된 역사하심입니다. 새벽예배와 소중한 시간을 위하여 새벽 2-3시에 일어나 새벽기도를 드리고 일과를 시작하는 목사님, 집사님의 시간 사용법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시간에 시계를 맞출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서울교회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과 우리 개인의 문제들을 높으신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는 시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천국시민 양성 - 빌립보서 반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반을 마치며

- 권성자 권사** 빌립보서 성경공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굳건한 복음 안에 있기를 다짐합니다.
- 김애리 권사** 교회의 믿음 생활하면서 늘 기준이 되는 성경말씀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래서 더 공부하고 싶었고 다락방이 목요일이라 참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 김정두 권사** 오직 예수!
- 김찬진 권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을 닮으신 목사님 짱, 반장님 짱, 감사합니다.
- 나현주 권사** 기쁨의 복음서인 빌립보서를 공부하며 구속의 몸인 바울의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최악의 환경을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바울의 생을 공부하며 즐겁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 남재은 집사**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서울교회와 저를 통해 하시려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 남태영 권사**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기쁨 충만한 서울교회 공동체 되게 하소서. 열정을 다하여 바울과 빌립보교회를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노애리 집사**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어려도 갖추는 믿는 자 되기를 소원하며.
- 박순복 권사**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통해 빌립보 교인들의 관대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것이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변화된 삶이 되길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서은석 장로** 말씀이 우리 삶에 더 큰 역사가 있으시길...
- 석상화 권사** 빌립보서 반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시금 다지게 됐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 석춘희 권사**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바울의 가르침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받는 삶이 되길 간구합니다

- 송명원 집사**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말씀 중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성숙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송정운 집사** 매주 목요일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 신경미 집사** “공동체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바울서신의 내용처럼 <서울교회>안에서 저의 구원이 이루어지길 기도해 봅니다.
- 이인숙 권사** 빌립보서 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풀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서로 섬기는 삶, 믿음의 경주 잘 하시길 기도합니다
- 김익환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자 하시는 열정이 특심이신 서울교회 성도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 최재련 집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황금선 권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운데서 풍성하심을 그리스도 은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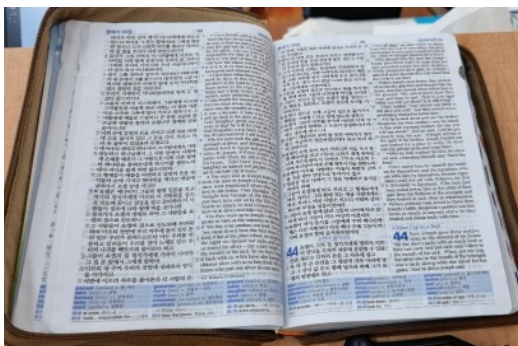


천국시민 양성 - 구약일독학교

맥을 짚어가며 읽은 구약말씀



서정현 권사 (교구)



결혼 전 나의 가족은 초파일 하루만 절 나들이를 하는 불교와 가까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아이를 양육하면서 주변에 흔히 보이는 교회로 등록해 아이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세례교육과 세례, 막내 유아세례로 이어지며 주일을 지키는 형식적 교인이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며 주일마다 듣는 목사님 설교는 듣는 듯 마는 듯 아이들 성경학교에만 신경이 쓰이곤 했습니다. 아이들 양육, 여러 가지 삶에 치여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고, 아이들도 모두 잘 자라주고 생활도 안정되었습니다.

어느덧 30년 정도 교회를 다니다 보니 성경이 궁금해졌습니다. 마침 교회에 구약일독학교 수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까운 권사님 권유로 등록했습니다.

강의 시간마다 장석남 목사님의 성경을 꿰뚫는 은혜로운 해설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성경을 읽으며 재미를 느끼는 신기한 나를 보게되고, 목사님의 맥을 짚어가며 해설을 따라가며 구약성경을 깊게 이해하고 느끼며 읽을 수 있어 감사와 은혜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일독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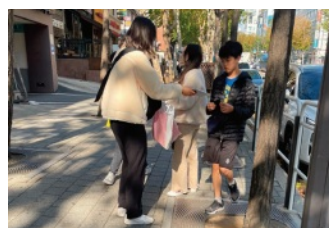
뜻밖에 큰 감동을 받은 구약일독에 이어 앞으로 이어지는 신약일독까지도 기대가 됩니다. 성경일독학교에서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축복의 성경일독 해 보세요, 환영합니다.



지난 11월 18일(금) 송정미 사모의 간증과 찬양 콘서트 시간은 상처 입은 성도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지난 11월 20일(주일) 임마누엘찬양대의 추수감사 찬양 'GLORIA! GLORIA! GLORIA!'



지난 11월 20일(주일) 노방전도에 나선 중·고등부 학생들

새가족부를 수료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가정이 되길..

조채환 성도(3교구)

어린 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에 처음 가던 날이 떠오르던 새신자 교육시간이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새삼스레 느끼지는 못했던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금 느낀 교육이었습니다.

이제, 저를 통해 주님을 영접한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라도 더욱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순 성도(3교구)

남편을 따라 교회에 함께 다니면서도 예수님과 구원이란 것에 대해 명확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고, 서울교회에서 새롭게 등록하고 새신자 교육을 받으며 믿음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에서 가족들과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만큼 알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믿음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구원의 확신과 언제나 주님이 제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초대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11월 30일 수요일 2부 예배 후에 교회정문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갖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수요일 2부 예배에 많이 참석하여 주시고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정

- 식사 및 떡 제공:
9교구 김정훈 집사 · 김희정 권사 가정
(자녀 결혼 은혜 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대림절 첫 주간이 되게 하소서.
2. 지난 31년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앞으로 30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새 포도주를 잘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3.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에 상처의 치유와 전인적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세계 여러 곳의 전쟁과 분쟁이 종식되고, 이 땅은 화해와 연합 그리고 복음으로 통일된 민족의 시대로 나아가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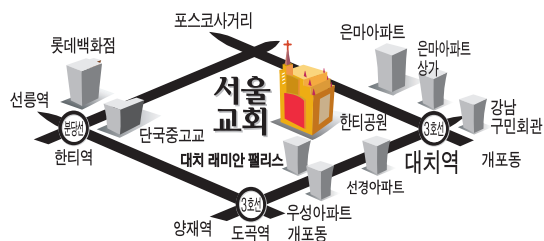
전교인 성경암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11월28일	월	고전 13-16		요 5:1-7:39	
11월29일	화	고후 1-3		요 7:40-11:57	
11월30일	수	고후 4-8		요 12-16	
12월1일	목	고후 9-13		요 17-21	
12월2일	금	갈 1-3		행 1-5	
12월3일	토	갈 4-6		행 6-9	
12월4일	주일	엡 1-4		행 10-13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